



# 프랑스어 + 프랑스 식도락과 음식문화

부르보네 지역은 오베르뉴, 부르고뉴와 리요네 지역을 경계로 위치한 지역이다. 이 땅의 풍요함과 다양성, 미각의 장인들이 빚어내는 요리의 높은 퀄리티, 그리고 도시 비시가 갖고 있는 손을 섬기는 전통 등은 비시에서 머무는 학생들에게 따뜻하고 맛있는 만남 들 뿐 아니라, 지방 특산물에서 사람으로, 상상에서 실현으로, 아름다운 풍경에서 손님 접대의 미덕에 이르는 식문화 유산이라는 구체적인 개념의 발견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체험을 가능하게 해준다.

## 목표

문학, 역사, 실습, 파티 등의 다양한 방면의 프랑스 식문화를 체험하면서 프랑스어를 배우거나 실력을 향상시킨다.

## 프로그램

- ▶ 오전 : 까빌람에서 불어 강좌:  
주 당 18 강좌 ( 1강좌당 45분 수업)
- ▶ 오후: 프랑스 식도락 및 식문화:  
주제별 강연회, 요리 실습, 레스토랑에서의 식사, 미각의 장인들과 제조업자들 방문 프로그램 등이 학구적이면서도 화기애애한 분위기로 진행된다. 이들 프로그램들은 불어구사능력 수준, 학력, 경력, 수학 동기별로 나뉘어진 그룹별로 맞춤형으로 진행된다.

## 참가자격

A2 불어 수준의 개인이나 그룹. 연령 ,성별 제한 없음.

## 기간 및 일자

- ▶ 7월의 2 주간
- ▶ 연중 어떤 때든, 특정 목적의 단체를 위한 프로그램(장소, 내용, 기간등 명시)도 요청에 따라 기획될 수 있다.

## 숙소

희망에 따라 선택 가능: 2성, 3성, 4성급 호텔, 홈스테이, 콘도미니엄, 원룸

자세한 내용은 요청하시면 알려드립니다.



**Le plaisir d'apprendre**